

‘임원경제지’를 통해 본 식물의 이용경향과 종예법(種藝法)

신상섭

우석대학교 조경도시디자인학과

투고일자 : 2012. 10. 04 · 심사일자 : 2012. 11. 01 · 게재확정일자 : 2012. 11. 22

국문초록

조선시대 조경관련 식물의 이용경향 그리고 서유구의 편저 ‘임원경제지’를 통해 본 식물의 심고 가꾸기에 대한 종예법(種藝法)을 추적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임원경제지’의 제3지에 해당하는 ‘만학지’ 편은 총 5권(총론, 과실수, 덩굴식물, 수목, 기타)으로 구성되었는데, 식물의 명칭과 품종, 토양조건, 심고 가꾸기, 접붙이기, 병충해 치료 방법 등을 체계적으로 기술하고 있는 조선시대 대표적 조경 관련 문헌이다.

둘째, 조경관련 용어에 있어서, 종재(種栽, 나무심기) 또는 재식(栽植), 재수시후(栽樹時候, 나무 심는 시기), 이재(移栽, 옮겨 심기), 작원리(作園籬, 울타리 만들기), 명품(名品, 품종명), 토의(土宜, 적합한 토양), 종예(種藝, 심고 가꾸기), 의치(醫治, 식물 치료), 호양(護養, 보호하고 기르기), 정원(庭園, 뜰) 또는 원포(園圃), 포자(圃者, 뜰 관리자) 또는 원정(園丁) 등의 용어를 사용하였다.

셋째, 조선시대 대표적 조경관련 문헌인 ‘양화소록’, ‘지봉유설’, ‘산림경제’, ‘임원경제지’에 나타난 식물종의 출현 빈도는 화훼류, 과실수류, 목류, 덩굴류 순으로 분석되었으며, 낙엽수의 비중이 상록수에 비해 3.7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화목류 및 과실수류, 낙엽활엽수 선호경향은 풍토환경에 조화되는 자생수종의 활용, 계절미를 위한 심미적 가치, 꽃과 열매를 위한 과실수의 도입 등 이용후생 경향, 그리고 성리학적 가치기준에 의한 상징성 등을 들 수 있다.

넷째, 식재 최적기를 음력 1월로 제시하였고, 비옥토를 많이 붙여 분 뜨기 하며, 생육방향에 맞춰 묻혔던 높이만큼 복토하여 식재하고 버팀목을 세워 보호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특히, 식재 최적기를 음력 정월로 기술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오늘날 이식 시기 판단에 많은 시사점을 제시한다. 한편, 씨앗 심기는 1치(3.3cm) 정도 깊이가 좋고, 꺾꽂이는 1월과 2월 사이에 손가락 굵기의 가지를 5치(16.5cm) 길이로 심는 것을 권장하였으며, 과실수를 접붙일 때 남쪽으로 뺀 가지를 쓰면 과실이 많이 달리는데, 정월에 전지하면 과실이 탐스럽고 굵어진다 하였다.

다섯째, 생울타리는 가을에 멧대추를 뽕뽕하게 심어 이듬해 가을 1자(30cm) 간격으로 행렬이 맞게 이식하고, 1-2년이 지난 이듬해 봄에 7자(210cm) 정도 높이로 엮어야 함을 제시하였다.

한편, 느릅나무와 버드나무를 섞어 심고 엮어주면 가지와 잎이 창살처럼 기이하고 아름다운 울타리가 만들어 진다 하였으며, 울타리 조성에는 탕자나무, 무궁화나무, 버드나무, 사철나무, 산앵두나무, 오가피나무, 매실나무, 구기자나무, 산수유나무, 처자나무, 뽕나무, 찔레나무 등 다양한 수종을 권장하였다.

※ 주재어 : 서유구, 임원경제지 만학지, 종예법, 화목류 및 과실수류, 낙엽활엽수, 생울타리

서론

조선의 17-18세기는 사회와 문화 전반의 정보를 수집하고 편찬하는 일이 유행하였고, 농림업과 일상생활에 관한 저술서가 다양하게 편찬되었다. 이러한 흐름을 선구적으로 이어받아 서유구(徐有矩, 1764-1845)는 농서대전(農書大全) 성격의 '임원경제지(林園經濟志)'를 편찬하였다. 특히, '임원경제지'는 농림업 관련 기술과 일상생활, 문화예술 및 경제 영역 등의 주제가 정리된 대작으로 조선뿐 아니라 중국과 일본은 물론 서양의 문헌 등 수많은 연구 성과를 집대성한 전례가 없는 업적이다(염정섭, 2009).

그동안 조경관련 고문헌을 번역한 성과는 '양화소록'을 이병훈이 번역(을유문화사, 1973년)하였고, 한국고전번역원에서 '산림경제'를, 농촌진흥청에서 '농사직설', '농정회요', '색경', '증보산림경제' 등을 번역하였다. 한편, '임원경제지'의 경우 1987년부터 1990년까지 김성우와 안대회가 '건축과 환경' 및 '꾸밈'지에 연재한 번역 성과가 있고, 2005년 안대회가 내용을 발췌하여 엮은 '산수 간에 집을 짓고' (돌베개), 인문한국 쌀, 삶, 문명 연구원에서 2009년과 2010년에 발행한 '임원경제지' 본리지와 만학지, 그리고 관휴지 편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임원경제지'는 임원경제연구소(소장 정명현)에서 완간을 목표로 번역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2012년 6월에 16지의 해제와 서문, 목차 등에 대한 개괄적 설명을 곁들인 '임원경제지'를 발간하였다. 또한, 이선(2006)은 광범위한 자료를 추적하여 조경공간의 식재역사, 전통적 배식형식과 조경식물 등을 규명하였는데, '우리와 함께 살아온 나무와 꽃'을 집필한 바 있다.

고문헌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경 관련 연구 성과로 변우혁(1976)은 '양화소록', '산림경제', '임원경제지' 등을 추적하여 "이조시대 정원의 수목과 배식기법"을 도출한 바 있고, 정동오(1986)는 '양화소록', '지봉유설', '산림경제', '화암수록', '임원경제지' 등에서 "조선시대에 활용된 조경 식물" 품종을 도출하였다. 신상섭 등(2009)은 '지봉유설'을 통하여 "조선시대 조경 식물의 인식 및

가치관"을 도출한 바 있고, 노재현 등(2009)은 "비해당사 십팔영의 출현식물이 조선시대 원예 관련서에 미친 영향"을 추적하여 출현종의 고문헌 연계성과 이용경향을 도출하였으며, 신상섭(2011)은 "홍만선의 산림경제에서 본 식물 재배와 가꾸기"에서 사대부계층이 경영했던 산림, 그리고 조경관련 식물의 재배 및 관리법을 추적한 바 있다.

1842년에 간행된 '임원경제지'는 인문학 분야에서 2003년 조창록의 "풍석 서유구와 임원경제" 연구를 필두로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건축분야는 1984년 김홍식의 "임원십육지의 상택지를 중심으로 한 조선 후기 건축 계획론에 관한 연구"로부터 45편의 연구 성과가 있다. 한편, 회화, 음식, 염색, 복식, 의약, 경제, 생활사 등 다양한 영역에서 '임원경제지' 관련 연구 성과가 지속적으로 축적되고 있다. 그러나 조경학 영역에서는 '임원경제지' 등 관련 고문헌의 증예법 등에 대한 후속연구가 심층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임원경제, 즉, 선조들의 지혜와 방법론이 응축된 수목의 재배 및 가꾸기와 보호법 등을 추적한 연구 성과 또한 미미한 상황 하에서 이에 대한 연구 성과의 도출 필요성이 요구된다.

특히, 본 연구는 수목을 심고 가꾼 선조들의 지혜와 방법론에 대한 조사와 분석 과정을 통하여 전통조경기법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추출함으로써 현대조경으로까지 계승, 발전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측면에서 의의를 둘 수 있다.

연구내용 및 방법

본 연구의 분석에는 조선시대 조경관련 식물의 이용경향에 대한 사료로 강희안(1417-1464)의 '양화소록', 이수광(1593-1629년)의 '지봉유설', 홍만선의 '산림경제', 서유구의 '임원경제지'가 원전으로 활용되었다. 또한, 이들 원전에 근거하여 번역된 이병훈의 '양화소록(1974)', 남만성의 '지봉유설(1975)', 민족문화추진회의 '산림경제(1982)'와 농촌진흥청의 '증보산림경제

(2003), 박순철과 김영의 '임원경제지(2010)', 임원경제연구소(소장 정명현)의 '임원경제지(2012)' 번역본 등이 분석 자료로 활용되었다. 한편, 조경관련 식물의 종예법에 대하여서는 서유구의 '임원경제지(1842)'를 원전으로 "인문한국 쌀, 삶, 문명연구원"에서 번역한 '임원경제지 만학지편'에 근거하여 심층적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원전 및 번역 성과에 근거하여 조선시대 조경관련 식물의 이용과 활용에 대한 전반을 추적함으로써 환경 조성과 관련한 수목의 재배 및 가꾸기 등 자료 축적을 연구 목적으로 설정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조경관련 식물 재배 및 가꾸기와 관련하여 '임원경제지' 만학지편을 중심으로 전개하였는데, 과실수, 채소류와 덩굴식물을 포함하는 과류(瓜類), 임목류, 기타 식물을 심고 가꾸며 수확하고 관리하는 방법 등에 대한 분석 내용을 담고 있다.

연구방법론에 있어서 ① 조경관련 식물의 이용경향으로 첫째, 문헌에 등장하는 식물을 한자명에 근거하여 국명 그리고 학명으로 정리하였고, 둘째, 식물의 성상을 분석하였으며, 셋째 선행연구 분석 자료와 비교하여 이용경향 등을 추적 하였다. ② 식물 재배와 가꾸기에 대한 종예법을 추적하기 위하여 첫째, '임원경제지'의 구성체계 등을 추적하여 제 3편 예원지와 제 4편 만학지에 기술된 식물 품종 등을 분석하였으며, 둘째 만학지 편을 중심으로 식물 재배와 가꾸기에 대한 일반론과 수종에 따른 종예법 등을 순차적으로 정리한 후 셋째, 종합고찰 과정을 거쳐 결론을 도출하였다. 특히, 결론에 이르는 과정은 '양화소록', '지봉유설', '산림경제' 등 조선시대에 간행된 대표적 조경관련 문헌과 '임원경제지'의 식물 종반영 경향 등을 비교, 분석 하였고, 품종별 종수법 등을 추적하여, 조선시대 중기 이후 식물 재배와 가꾸기에 대한 선조들의 경험론적 지혜 등을 추적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는 '임원경제지'에 근거한 식물 재배와 가꾸기라는 제한된 연구 성과임은 물론 '양화소록', '지봉유설', '산림경제', '임원경제지' 등 문헌을 중심으로 식물 종 도입 경향을 제한적으로 추적한 연구 성과라는 한계를 보여주었다. 따라서 이들 문헌의 비교분석 연구는 물론 실증성과 적용성 등의 실험적 연구, 그리고 식물의 종수법과 양화법 등에 대한 보편성과 특수성 등 실사

구시적으로 도출, 적용할 수 있는 등의 종합적인 연구는 추후 과제로 남기고자 한다.

서유구와 '임원경제지'

서유구의 자는 준평(準平), 호는 풍석(楓石)인데, 대제학을 지낸 서명응의 손자이며, 이조판서를 지낸 서호수의 아들로 1764년(영조 40년) 한양에서 태어났다. 1790년(정조 14년) 문과에 급제한 이후, 의주부윤·대사성·강화부 유수·형조·예조판서·대사헌 등 요직을 거쳐, 1838년(헌종 4년) 이후 이조와 병조판서, 우참찬, 좌참찬, 대제학 등을 역임했다. 실학에 조예가 깊었던 서유구는 백가서(百家書)에 통달하였으며, '향례합편', '행포지', '종저보', '경술지', '옹회지', '난호어목지', '금화경독기' 등 수많은 저술을 남겼다. 서유구가 편집하고 아들 서우보(1796-1827)가 교정한 '임원경제지'는 '농사직설', '지봉유설', '산림경제', '택리지' 등 여러 분야의 서적을 토대로 1,000여 종이 넘는 한중일 고문헌을 참고하여 집필한 조선최대의 실용백과사전이다.

특히, 실용지식을 16개 분야로 분류하여 일명 '임원십육지'로도 불리는 '임원경제지'는 제3지 '예원지'편에는 화훼류의 재배법과 65종의 명칭 고증, 알맞은 토양, 재배시기, 재배법 등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식물 가운데 '관휴지'에서 다루지 않은 것을 대상으로 이목비(耳目鼻)를 즐겁게 할 만한 것을 정리하였는데, 입만 즐기면서 눈, 코, 귀를 무시하면 치우친 것이라 하였고, '예원'은 굴원이 구원(九畹)에 난초를 심었던 뜻을 따서 지었다(조창록 2005). 한편, 제4지 '만학지'편에서는 과실수와 임목은 물론 초목 잡류에 이르기까지 나무를 심고 가꾸며 보호하는 내용을 다루었는데, 만학지인(晩學志引)에서는 나라를 세워 궁실을 지은 다음 나무를 심는 일이 뒤따라야 한다며 농정의 빼놓을 수 없는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만학지' 편 권1은 총서인데 나무를 심고, 접붙이고, 기르고, 거두는 방법을 설명하였고, 권2는 과류(菓類)

인데 자두나무, 살구나무, 매실나무, 복숭아나무 등 과실수를 키우고 접붙이며 거두고 치료하는 방법 등을 기술하였다. 권3은 나류(蔬類)인데, 채소류(참외, 수박, 포도 등)를 심고 거두는 방법을 제시하였고, 권4는 목류(木類)

인데, 소나무, 잣나무, 느릅나무, 버드나무 등을 심고 가꾸는 방법, 쓰임새 등을 기술하였다. 권5는 잡식(雜植)인데 차(茶), 대나무, 쪽, 갈대 등을 심고 가꾸며 치료하고 거두는 방법 등을 설명하였다(염정섭, 2009).

표 1 '임원경제지' 예원지에 기록된 식물종

권	분류	식물종	비고
1	總敍	種栽(나무심기), 接換(접붙이기), 壟(복돋우기), 葺理(즙리), 護養(보호하고 가꾸기), 鋪置(포치), 品第(품제), 時令(계절별 관리법), 瑣言(쇄언), 收藏(저장하기)	총설
2	花類上 (22종)	牡丹(모란), 瑞香(서향), 山茶(산다), 梔子(치자), 梅花(매화), 蠟梅(납매), 石榴花(석류), 海棠(해당), 薔薇(장미), 紫薇花(배롱나무), 四季花(사계화), 月季花(월계화), 丁香(수수꽃다리), 木香(목향, 국화과), 玫瑰(해당화), 紫荊(박태기나무), 木芙蓉(목부용), 杜鵑花(진달래), 躑躅花(철쭉), 映山紅(영산홍), 迎春花(영춘화), 木槿(무궁화)	화목류
3	花類下 (28종)	蘭花(난), 菊(국화), 芍藥(작약), 荷花(연꽃), 水仙(수선), 玉簪花(옥잠화), 萱(원주리), 蜀葵(접시꽃), 錦葵(당아욱), 秋葵(해바라기), 山丹(산단, 나리과), 玉美人(옥미인), 金錢花(금전화), 滴滴花(적적화), 鳳仙(봉선화), 罌粟(양귀비꽃), 麗春(려춘, 개양귀비꽃), 前春羅(동자꽃), 前秋羅(전추라), 鷄冠花(맨드라미), 秋牡丹(추모란), 纏枝牡丹(전지모란), 秋海棠(추해당, 베고니아), 石竹(석죽), 射干(범부채), 錦枝(금지), 繡毬(수국), 旱蓮(한련)	화훼류
4	卉類 (15종)	石菖蒲(석창포), 吉祥草(길상초), 芝(지초, 잔디), 蕉(파초), 書帶草(서대초), 翠雲草(취운초), 老少年(노소년), 蕓香(운향), 萬年松(만년송), 草松(초송), 棕竹(중죽), 闌天竹(남천), 虎刺(호자), 鐵蕉(소철), 欄(중려)	초화류
5	花名攷 (4종)	牡丹(모란), 芍藥(작약), 蘭花(난), 菊(국화)	품종유형

표 2 '임원경제지' 만학지에 기록된 식물종

권	분류	식물종	비고
1	總敍	種栽(나무심기), 接換(접붙이기), 澆壟(물주고 복돋우기), 葺理(즙리), 護養(보호하고 가꾸기), 作籬諸品(울타리 만들기), 收採(수확하기)	총설
2	菓類 (31종)	李(자두나무), 杏(살구나무), 梅(매실나무), 桃(복숭아나무), 栗(밤나무), 棗(대추나무), 梨(배나무), 棠梨(팔배나무), 柰(능금나무), 蘋果(사과나무), 林檎(임금나무), 秣(감나무), 君遷子(고욤나무), 秣蕃(토마토), 安石榴(석류나무), 櫻桃(앵도나무), 木瓜(모과나무), 山楂(산사나무), 銀杏(은행나무), 胡桃(호도나무), 榛(개암나무), 海松子(잣나무), 橡(상수리나무), 蜀椒(산초나무), 胡椒(후추나무), 食茱萸(머귀나무), 檮(굴나무), 柑(홍굴나무), 柚(유자나무), 榧子(비자나무), 無花果(무화과나무), 山野菓品(산야과실수류)	과실수류
3	蔬類 (14종)	甜瓜(참외), 西瓜(수박), 附北瓜(부북외), 葡萄(포도), 山葡萄(머루), 獼猴桃(다래), 五味子(오미자), 覆盆子(복분자), 薯蕷(마), 甘藷(고구마), 北藷(북저), 落花(낙화), 蓮子(연밥), 菱(마름), 芡(가시연), 烏芋(올방개), 慈姑(소귀나무)	채소류
4	木類 (25종)	松(소나무), 柏(측백), 檜(전나무), 杉(삼나무), 檜(노송나무), 榆(느릅나무), 柳(버드나무), 柳水楊(류수양), 白楊(사시나무), 槐(회화나무), 桐(오동나무), 漆(옻나무), 椿(가죽나무), 樺(왕벚나무), 楮(닥나무), 楸(가래나무), 盧木(붉나무), 黃楊木(회양목), 栲(물푸레나무), 女貞(광나무), 烏臼(오구나무), 查(풀명자나무), 棟(멀구슬나무), 皂莢(주엽나무), 五加(오갈피나무), 枸杞(구기자나무)	임목류
5	雜植類 (13종)	茶(차나무), 竹(대나무), 紅藍(잇꽃), 菘藍(송림), 蓼藍(오람), 紫草(자초), 篋麻(아주까리), 香蒲(부들), 葦(갈대), 龍鬚(양골), 燈心草(골풀), 荊三稜(형삼릉), 烟草(담배)	기타식물

결과 및 고찰

1. 조선시대 조경관련 문헌에 기록된 식물종의 반영 경향

조선시대 초기 민간에 보급된 '양화소록'은 1474년 간행된 이후 사대부를 대상으로 화분 재배를 위한 참고서로 활용되었으며(강세구, 1988), 이후 식물관련 농서(農書) 등에 많은 부분 참고 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흥만선의 '산림경제'에는 '양화소록'의 관련 화훼식물종이 빠짐없이 인용될 만큼 기본서로 활용되었다(이호철, 2004). '양화소록'은 꽃의 재배기술 뿐만 아니라 분에 심는 법, 빨리 피우는 법, 꽃 고르기와 꺼리는 법, 화분배열법 그리고 저장법 등을 소개하고 있는데, '제민요술'을 비롯한 총 49종의 화훼서 및 농서를 참조하였다(강세구, 1988). 이를 볼 때 '양화소록'에 기술된 식물은 지식인들 사이에 뜰 가꾸기와 관련한 대표적 식물로서의 인식이 각인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산림경제'와 '임원경제지' 등 후대에 기술된 관련 문헌에 적극적으로 반영되었고, 조경문화의 대중적 보급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산림경제'의 종수(種樹 : 22종) 및 양화(養花 : 30종) 편에 기술된 총 52종 식물종의 성상을 분석해 보면 교목 31종(59.6%), 관목 8종(15.4%), 기타 3종(5.8%), 초본 10종(19.2%)이었다. 구체적으로 보면 교목의 경우 상록 6종(11.5%), 낙엽 25종(48.1%)으로 분류되고, 관목의 경우 상록 2종(3.8%), 낙엽 6종(15.41%)으로 분류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추적해볼 때 교목의 비중이 관목에 비해 3배 이상 높게 나타나고, 낙엽수의 비중이 상록수에 비해 3배 이상 높게 나타난다. 특히, 교목 : 관목(기타 포함) : 지피 초화의 비율은 6 : 2 : 2로 분석되고 있는바 교목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28종에 이르는 유실수(사과, 복숭아, 귤, 석류, 살구, 은행, 밤 등)와 약용수(모란, 작약, 산수유, 모과, 뽕나무 등) 같은 이용후생의 경향이 강하게 표출된다(신상섭, 2011).

한편, '임원경제지'에는 화훼류 65종, 그리고 과수와

임목류 83종 등 모두 148여종의 식물 명칭과 품종, 적합한 토양, 심고 가꾸기, 접붙이기, 치료법 등이 상세하게 기술되고 있다. 화훼류를 다룬 '예원지'에는 이목비(耳目鼻)를 즐겁게 할 수 있는 화훼류의 일반적인 재배법 그리고 모란, 작약, 매화, 해당 등 화류(花類) 50종과 석창포, 잔디, 종려 등 화류(卉類) 15종을 소개하고 있으며, 품종이 다양한 모란, 작약, 난, 국화의 경우 꽃 색깔에 따른 분류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또한, '만학지'에는 이들의 재배법과 과류(菓類) 31종(지두, 살구, 매실, 복숭아, 배, 능금, 은행나무 등), 채소류를 지칭하는 라류(蔬類) 14종(참외, 수박, 복분자, 포도, 다래, 연밭 등), 목류 25종(소나무, 측백나무, 전나무, 버드나무, 오동나무, 왕벚나무, 회양목 등), 기타 잡식류 13종(차나무, 대나무, 부들, 갈대 등)을 소개하고 있다.

'임원경제지'에 기록된 식물 148종을 출현 빈도로 보면 화훼류와 임목류는 65종(44.0%) : 83종(56.0%)의 점유율을 보이는데, 화류 50종(33.8%), 화류 15종(10.1%), 과류 31종(20.9%), 라류 14종(9.5%), 목류 25종(16.9%), 기타 13종(8.8%)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뜰에 도입된 화목류, 식용이 가능한 과실수류, 생활용품 등으로 활용이 가능한 임목류 등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는바 실사구시와 이용후생의 경향을 보여주는 실증 사례라 하겠다. 또한 성상별 출현 빈도를 보면 낙엽 교목 49종(33.1%), 상록교목 12종(8.1%), 낙엽관목 18종(12.2%), 상록관목 6종(4.0%), 덩굴성 식물류 5종(3.4%), 수생식물 11종(7.4%), 초화 37종(25.0%), 기타 10종(6.8%)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교목 : 관목 : 초화 : 기타 식물종의 점유율은 61종(41%) : 24종(16%) : 37종(25%) : 26종(18%)으로 분석되는바 교목이 관목에 비해 2.5배 이상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낙엽수 : 상록수의 점유율은 67종(45.3%) : 18종(12.1%)으로 분석되는바, 낙엽수의 비중이 상록수에 비해 3.7배 이상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3〉은 '양화소록', '지봉유설', '산림경제', '임원경제지' 등 조경 관련 옛 문헌에 등장하는 식물을 한자명에 근거하여 국명 그리고 학명으로 정리하여 분석한 것이다. 식물의 총 출현 종은 각각 '양화소록' 20종, '지봉유설' 20종, '산림경제' 52종, 그리고 '임원경제지' 148

종 등으로 시대가 흐를수록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이들 문헌에 모두 등장하는 식물은 소나무, 대나무, 매화, 국화, 연꽃, 동백나무 그리고 치자나무, 모란 등 8종이다. 특히, 조선시대 선비들이 수심양성의 지표로 삼고

있던 사절우(四節友) 상징수종인 매(梅), 송(松), 국(菊), 죽(竹)을 포함하여 군자의 꽃으로 일컬어지는 연(蓮), 부귀영화를 염원하며 화왕(花王)으로 일컬어지는 모란 등은 지속적으로 애용되었던 대표적 사례라 하겠다.

표 3 '양화소록', '지봉유설', '신림경제', '임원경제지'에 등장하는 조경 관련 식물

식물명			양화소록 1474	지봉유설 1614	산림경제 1643-1715	임원경제지 1827-1842	비고
한자명	국명	학명					
松	소나무	<i>Pinus densiflora</i>	○	○	○	○	목류
萬年松	항나무	<i>Juniperus chinensis</i>	○		○	○	훼류
海松子	잣나무	<i>Pinus koraiensis</i>			○	○	柏子
側柏	측백나무	<i>Thuja orientalis</i>		○	○	○	柏
枇子	비자나무	<i>Torreya nucifera</i>				○	과류
檜	전나무	<i>Abies Holophylla</i>				○	목류
杉	삼나무	<i>Cryptomeria japonica</i>				○	목류
山茶花	동백나무	<i>Camellia japonica</i>	○	○	○	○	화류
橘	귤나무	<i>Citrus spp.</i>	○		○	○	과류
柑	홍귤나무	<i>Citrus tachibana</i>				○	과류
棕竹	종려나무	<i>Trachycarpus fortunei</i>				○	훼류
柚	유자나무	<i>Citrus junos</i>				○	과류
茶	차나무	<i>Camellia sinensis</i>				○	잡식류
蘭天竹	남천	<i>Nandina domestica</i>				○	훼류
女貞	광나무	<i>Ligustrum japonicum</i>				○	목류
梔子花	치자나무	<i>Gardenia jasminoides</i>	○	○	○	○	화류
黃楊木	회양목	<i>Buxus microphylla var. koreana</i>				○	華楊木
映山紅	영산홍	<i>Rhododendron indicum</i>		○		○	화류
倭躑躅	일본철쭉	<i>Rhododendron spp.</i>	○		○		왜홍
蘇鐵	소철	<i>Cycas revoluta</i>		○	○	○	番蕉
竹	대나무	<i>Phyllostachys or Sasa spp.</i>	○	○	○	○	잡식류
石榴花	석류나무	<i>Punica granatum</i>	○		○	○	海榴
梅	매화나무	<i>Prunus mume</i>	○	○	○	○	화류
紫薇花	배롱나무	<i>Lagerstroemia indica</i>	○		○	○	花木
桃	복사나무	<i>Prunus persica</i>			○	○	小桃
杏	살구나무	<i>Prunus armeniaca</i>			○	○	과류
柿	감나무	<i>Diospyros kaki</i>				○	과류
桐	오동나무	<i>Paulownia coreana</i>				○	梧桐
梨	배나무	<i>Pyrus spp.</i>				○	과류
丹楓	단풍나무	<i>Acer palmatum</i>				○	목류
銀杏	은행나무	<i>Gingo biloba</i>		○	○	○	鴨脚樹
無患木	무환자나무	<i>Sapindus mukurossi</i>		○			
膚木	붉나무	<i>Rhus chinensis</i>		○		○	千金木
合歡木	자귀나무	<i>Albizzia julibrissin</i>		○			
樺	왕벚나무	<i>prunus yedoensis</i>	○			○	목류
榿梓	가래나무	<i>Juglans mandshurica</i>				○	목류

표 3 계속

식물명		학명	양화소록 1474	지봉유설 1614	산림경제 1643-1715	임원경제지 1827-1842	비고
한자명	국명						
小桃	개복숭아	<i>Prunus persica</i>			○	○	
木瓜	모과나무	<i>Pseudocycdonia sinensis</i>			○	○	과류
柳	버드나무	<i>Salix babyronica</i>			○	○	목류
木蓮	목련	<i>Magnolia kobus</i>			○	○	木芙蓉
桑	뽕나무	<i>Morus alba</i>			○		
杜冲	두충나무	<i>Eucommia ulmoides</i>				○	貞木
丹柰	능금나무	<i>Malus asiatica</i>			○	○	林檎
山茱萸	산수유	<i>Cornus officinalis</i>			○		
楂果	사과나무	<i>Malus pumila var. dulcissima</i>			○	○	과류
槐木	느티나무	<i>Zelkova serrata</i>			○	○	목류
楮	닥나무	<i>Broussonetia papyrifera</i>			○	○	목류
栗木	밤나무	<i>Castanea crenata</i>			○	○	과류
棗木	대추나무	<i>Zizyphus jujuba var. inermis</i>			○	○	과류
胡桃	호두나무	<i>Juglans sinensis</i>			○	○	과류
梨	배나무	<i>Pyrus spp.</i>			○	○	과류
李	자두나무	<i>Prunus salicina</i>			○	○	오얏나무
君遷子	고욤나무	<i>Diospyros lotus</i>				○	과류
榛	개암나무	<i>Corylus heterophylla var. thunbergii</i>				○	과류
食茱萸	머귀나무	<i>Zanthoxylum ailanthoides</i>				○	과류
漆	옻나무	<i>Rhus verniciflua</i>			○	○	목류
榆	느릅나무	<i>Ulmus davidiana var. japonica</i>				○	목류
白楊	사시나무	<i>Populus glandulosa</i>				○	목류
栲	물푸레나무	<i>Fraxinus rhynchophylla</i>				○	목류
橡	상수리나무	<i>Quercus acutissima</i>				○	과류
楝	멀구슬나무	<i>Melia azedarach</i>				○	목류
皂莢	주엽나무	<i>Gleditsia japonica</i>				○	목류
無花果	무화과나무	<i>Ficus carica</i>				○	과류
瑞香花	서향화	<i>Daphne odora</i>	○		○	○	화류
紫荊	박태기나무	<i>Cercis chinensis</i>				○	화류
櫻桃	앵두나무	<i>Prunus tomentosa</i>			○	○	과류
躑躅	철쭉	<i>Rhododendron schlippenbachii</i>		○		○	화류
杜鵑	진달래	<i>Rhododendron mucronulatum</i>				○	화류
楂	명자나무	<i>Chaenomeles speciosa</i>				○	화류
四季花	사계화	<i>Rosa chinensis</i>	○		○	○	화류
月桂花	월계화	<i>Rosa chinensis</i>	○	○		○	화류
丁香	수수꽃다리	<i>Syringa spp.</i>			○	○	庭香
臘梅	납매	<i>Chimonanthus praecox</i>		○		○	화류
薔薇	장미	<i>Rosa spp.</i>		○		○	長春花
海棠花	해당화	<i>Rosa rugosa</i>			○	○	화류
牡丹	모란	<i>Paeonia suffruticosa</i>	○	○	○	○	花王
木槿	무궁화	<i>Hibiscus syriacus</i>				○	화류

표 3 계속

식물명			양화소록 1474	지봉유설 1614	산림경제 1643-1715	임원경제지 1827-1842	비고
한자명	국명	학명					
吾加	오갈피	<i>Acanthopanax sessiliflorus</i>				○	목류
枸杞	구기자	<i>Lycium chinense</i>				○	목류
頭菜木	두릅나무	<i>Aralia elata</i>			○		
葡萄	포도나무	<i>Vitis vinifera</i>			○	○	草龍
山葡萄	머루	<i>Vitis coignetiae</i>				○	과류
獼猴桃	다래	<i>Actinidia arguta</i>				○	과류
五味子	오미자	<i>Schizandra chinensis</i>				○	과류
覆盆子	복분자	<i>Rubus coreanus</i>				○	과류
葦	갈대	<i>Phragmites communis</i>				○	잡식류
龍鬚	왕골	<i>Cyperus iwasaki</i>				○	잡식류
燈心草	골풀	<i>Juncus effusus var. decipiens</i>				○	잡식류
香蒲	부들	<i>Typha angustifolia</i>				○	잡식류
蓮	연	<i>Nelumbo nucifera</i>	○	○	○	○	荷花
菱	마름	<i>Trapa japonica</i>				○	과류
芡	가시연	<i>Euryale ferox</i>				○	과류
罌粟	양귀비	<i>Papaver somniferum</i>				○	화류
芍藥	작약	<i>Paeonia lactiflora</i>	○		○	○	화류
菊	국화	<i>Chrysanthemum morifolium</i>	○	○	○	○	화류
蘭花	난	<i>Cymbidium spp.</i>	○		○	○	화류
鷄冠花	맨드라미	<i>Celosia cristata</i>				○	화류
萱草	원추리	<i>Hemerocallis fulva</i>			○	○	合歡花
玉簪花	옥잠화	<i>Hosta plantaginea</i>				○	화류
向日葵	해바라기	<i>Helianthus annuus</i>				○	화류
白合	나리류	<i>Lilium spp.</i>				○	화류
金錢花	금잔화	<i>Calendula arvensis</i>				○	화류
鳳仙花	봉선화	<i>Impatiens balsamina</i>		○		○	화류
剪秋紗	동자꽃	<i>Lychnis cognata</i>				○	화류
葵花	접시꽃	<i>Althaea rosea</i>			○	○	蜀葵
石竹	패랭이꽃	<i>Dianthus sinensis</i>			○	○	화류
菖歎	창포	<i>Acorus calamus var. angustatus</i>				○	훼류
石蒼蒲	석창포	<i>Acorus gramineus</i>	○		○	○	훼류
芭蕉	파초	<i>Musa basjoo</i>			○	○	草王
射干	범부채	<i>Belamcanda chinensis</i>				○	화류
吉祥草	길상초	<i>Reineckea carnea</i>				○	훼류
기타						44종	
합계			20종	20종	52종	148종	

선행연구와 관련하여 변우혁(1975)은 낙엽활엽수가 조경식물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화목의 종류가 다양하며, 야생 초화가 적고, 과실수의 비중이 높은 것을 조선시대 식물 이용의 특징으로 보았다. 한편, 상록교목이 적은 이유를 홍만선의 ‘산림경제’에 근거하여 “겨울에 홀로 푸른 상록수를 꺼려함(忌獨樹冬靑)”이란 대목을 제시하여 설명했다. 한편, 이선(2006)은 우리나라 자생수종의 종별 비율을 보면 상록수가 전체의 20-30%를 차지하여 결국 상록수는 낙엽수에 비해 그 수와 종류가 현격히 적기 때문에 조경식물로 쓰이는 비율 또한 적다 하였다.

이와 같은 낙엽활엽수 우세 경향은 ‘임원경제지’도 동일할바, 조선시대에 일관된 양상으로 추적된다. 즉, 조경 관련 식물종의 낙엽활엽수 선호경향은 풍토환경에 조화되는 자생수종의 적극적 활용, 식물들의 생태적 특

성으로 계절미를 취할 수 있으며 꽃을 즐길 수 있는 등의 심미적 가치는 물론 열매를 먹을 수 있는 실사구시와 이용후생의 경향을 들 수 있다. 특히, 성리학적 가치기준으로 ‘거경궁리(居敬窮理)’를 위한 내적 수양(存心養性)과 외적 성찰(格物致知)을 위한 수심양성의 지표와 같은 의미경관요소로의 활용 요인 등을 연계시킬 수 있다.

2. ‘임원경제지’에 기록된 종재법(種栽法)

‘임원경제지’ 만학지에는 종재법과 관련하여 식목 시기, 씨앗 보관과 파종, 이식 방법, 꺾꽂이와 접붙이기 방법, 식재 후 수분의 공급과 거름흙을 주어야 하는 방법론 등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수목 보호 및 기르기, 울타리 만들기와 관련 식물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바 정리한 결과는 <표 4>의 내용과 같다.

표 4 ‘임원경제지’에 기록된 나무심기(種栽), 접붙이기(接換), 그리고 보호하기(護養) 방법

구분	나무심기와 가꾸기	비고
시기 (時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음력 정월이 上時, 2월이 中時, 3월이 下時인데 2월중에 끝낸다. 속토를 많이 붙여 분을 뜨고, 남쪽가지를 표시해 방향에 맞춰 심는다. 춘분 이후에는 좋지 않고, 추분 이후에는 무방하다. 	나무심기 (種栽)
종자저장 (藏種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종자를 봉투에 담아 보관하면 대부분 싹이 나지 않는다. 표주박이나 주머니에 담아 보관하면 싹이 잘 난다. 	나무심기 (種栽)
파종 (子種)	<ul style="list-style-type: none"> 좋은 종자를 양지쪽 구덩이를 파고 거름흙을 덮어 가지런히 파종하면 이듬해 봄에 모두 싹이 난다. 맑은 날에 씨앗을 심어야 하고, 3-5일 후에 비가 내려야 좋은데, 가물면 싹이 나지 않으므로 자주 물을 주어야 한다. 한 치 정도 깊이 파종하는 것이 좋고, 비옥한 땅에 적기에 모종 한다. 	나무심기 (種栽)
옮겨심기 (移栽)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속토를 많이 붙여 분 뜨기하고, 남쪽 가지를 표시해 음양의 방향을 맞춰 심는다. 구덩이를 깊이 파고 나무를 세운 후 물을 부어 흙과 뿌리사이사이로 진흙이 잘 채워지게 심고 구덩이를 단단히 다져주어야 하며, 물을 자주주어 마르지 않게 한다. 작은 나무는 전지할 필요가 없으나 큰 나무는 전지하고 흔들리지 않도록 관리하며, 원래 묻혔던 높이만큼 복토하여 심는다. 큰 나무는 뿌리분을 뜯 때 흙을 넓게 남겨두어야 하는데, 한 길 되는 나무는 두자, 멀리 옮길 경우 2자 5치를 남겨 뿌리돌림하면 좋다. 	나무심기 (種栽)
뿌리나누기(分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뿌리 옆에 작은 그루가 나오면 이듬해 본 뿌리와 연결된 곳을 잘라 옮기는 것이 좋다. 	나무심기(種栽)
휘묻이 (壓條)	<ul style="list-style-type: none"> 2월 말부터 3월까지 휘묻이 할 수 있는데, 가지 몸체의 반쯤 땅에 휘어 묻는다. 장마철에 이르러 가지와 잎이 무성하면 뿌리가 잘 나온 것인데, 이듬해 상강 이후에 잘라 옮겨 심으면 좋다. 	나무심기 (種栽)
탈지 (脫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작은 과실수와 꽃나무를 옮겨 심을 때에는 진흙으로 나무껍질을 봉하여 놓으면 뿌리가 잘 나는데, 이듬해에 대나무로 뿌리를 잘라 심는다. 	나무심기 (種栽)
꺾꽂이 (扞插)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싹이 틀 때 튼실한 가지를 한자 쯤 잘라 기름진 땅에 고랑을 내어 심고, 물을 주며 햇빛 가리개를 세워준다. 날이 흐릴 때 꺾꽂이하면 좋은데 비가 오면 모두 살고, 비가 오지 않으면 활착률이 떨어진다. 3월 상순에 과실수의 곧고 어린 가지 중 손가락 굵기를 골라 5치 길이로 잘라 토란, 순무, 무 등에 꽂아 심는 것이 좋다. 잘린 가지 끝이 거꾸로 심어지거나 상하지 않게 하여 그늘진 곳에 심으면 자연스럽게 뿌리가 나온다. 	나무심기 (種栽)

표 4 계속

구분	나무심기와 가꾸기	비고
접붙이기 (接換)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양지쪽 생기가 왕성하고 튼실한 가지를 선택하여 춘분 전후 10일 쯤 접을 붙이면 좋다. 접붙이기는 푸른 속껍질이 맞게 하고, 두 나무의 절단면이 맞게 하며, 접붙이는 나무와 밑나무가 잘 맞물리게 봉해야 한다. 방법으로 신접, 근접, 피접, 지접, 엽접, 탐접, 과접, 행접, 접화교법, 원지취접지법 등이 있다. 	접붙이기 (接換)
물주고 복돋우기 (澆壟)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요법(灌澆法) : 아침저녁으로 물을 뿌려 촉촉이 해야 하는데, 오래된 냉분(冷糞)을 물과 3 : 1로 섞어 사용한다. 5월에 비가 올 때 거름을 주면 뿌리가 썩으므로 6-7월에 썩이 나서 안정되면 가볍게 줄 수 있다. 배운법(培壟法) : 거름에 흙을 섞어서 뿌리 보다 3-5치 높이로 복돋아 주고, 정해진 양의 물을 일정하게 뿌려준다. 	수목보호 (護養)
줍리 (葺理)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박수법 : 정월에 번무하고 무질서한 가지를 잘라 좋은 과일을 얻는 법 열지법 : 봄에 나뭇가지를 비틀어 나무심만 부러뜨리고 껍질을 상하지 않게 하는 법 중근 제거법 : 주근을 제거하고 곁뿌리를 붙여 그을려 다시 심는 법 선수법 : 정월에 썩이 트기 전 땅속 깊이 들어간 뿌리를 제거하는 법 서예법 : 나무 아래를 지면보다 3-5치 높고 평평하게 흙을 채워주며 잡초도 매어주고 밟아 주면 열매도 좋고 벌레도 적어지는 법 	수목보호 (護養)
적수 (炙樹)	<ul style="list-style-type: none"> 12월에 썩뚝 뜨는 것 같이 뿌리 쪽 흙을 제거하고 보릿짚을 덮어 불로 태운 후 흙을 복돋아준다. 가지가 말라 죽으려 할 때 3치 정도 양지쪽 흙을 태워 뜸질해 준다. 	수목보호 (護養)
시집보내기 가수 (嫁樹)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설날 해뜨기 전 대추나 자두를 찢고 두드려주면 열매가 많이 달리고 튼실해진다. 정월 초하루 해뜨기 전, 대보름날, 그믐날 납작하고 길쭉한 돌을 과일나무 가지 사이에 끼워 놓으면 열매가 많이 달리고 튼실해진다. 	수목보호 (護養)
대과 (代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매실과 자두 등 열매가 많이 달리는 것은 이듬해에 가지를 쉬게 해야 쇠하지 않으므로 꽃이 필 때 꽃을 번갈아 가며 따주어야 한다. 	수목보호 (護養)
새와 벌레 퇴치 (辟禽蟲)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새가 날아와 과일을 쪼아 먹을 경우 쇠뇌를 한 두개 장대 끝에 매달아 놓으면 새들을 퇴치할 수 있다. 청명일 삼경에 벼짖을 나무에 묶어놓으면 송충이가 생기지 않는다. 	수목보호 (護養)
의양 (醫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암나무 사이에 숫나무를 한두 그루 심어 놓으면 과실이 잘 맺는다. 열매 맺지 않는 과실수는 선달 그믐날 밤 한사람은 '열매를 맺지 않으면 당장 베어버릴 것이다' 라고 꾸짖고, 다른 한사람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라고 대답하면 이듬해에 많은 과실을 맺는다. 	수목보호 (護養)
금기 (宜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실수는 흰옷 입을 사람을 꺼려 나무 밑을 지나면 열매가 떨어진다. 효자와 임산부가 과실수 가지를 꺾으면 꽃과 과실을 잘 맺지 않는다. 사람이 과실을 훔쳐 먹으면 새들이 알아채고 곧 쪼아 먹는다. 	수목보호 (護養)
바람 막기 (禦風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수원은 서쪽과 북쪽에 대나무를 심어 바람을 막아주면 과실수가 얼어서 손실되는 일이 생기지 않는다. 연못을 만들어 고기를 기르고 나무에 물을 대려면 파낸 흙을 서쪽과 북쪽에 언덕을 만들고 자죽(慈竹) 또는 삼나무, 두충나무를 심어 병풍처럼 울타리를 만든다. 	수목보호 (護養)
서리 물리치기 (拒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실수는 꽃이 만발할 때 서리를 맞으면 열매를 맺지 않으므로 잡초로 만든 거름을 쌓아두어야 한다. 비가 온 뒤 차가운 북풍이 불면 서리가 내리므로 거름에 불을 놓아 연기를 피우면 서리를 피할 수 있다. 정월과 2월 사이에 잎사귀, 왕겨 등을 태워 밤새도록 연기가 피어오르게 하면 서리로부터 보호할 수 있고, 지력을 돋을 수 있으며 벌레와 개미도 물리칠 수 있어 일거삼득의 효과가 있다. 	수목보호 (護養)
울타리 만들기 (作園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을에 멧대추를 뽕뽕하게 심어 이듬해 가을 3자 정도 자랐을 때 1자정도 간격으로 1그루씩 행렬이 맞도록 이식한다. 이듬해 봄에 곁가지를 쳐내고 적당하게 묶어주며, 다음해 봄에 가지 끝을 잘라 7자 정도 높이로 엮는다. 느릅나무와 버드나무를 섞어 심어 사람 키만큼 자란 뒤 엮어주면 가지와 잎이 창살처럼 뒤엉켜서 기이한 모양이 되고 아름다운 울타리가 만들어 진다. 탱자나무, 무궁화, 버드나무 등으로 울타리를 만들어 도둑을 막는다. 울타리로 쓰이는 나무로는 2-3월 또는 8-9월에 이식하는 사철나무, 1-2월에 이식하는 산앵두나무, 정월에 꺾꽂이하는 오가피나무, 매실나무, 정월과 8-9월에 꺾꽂이하는 구기자나무, 산초나무, 산수유나무, 치자나무, 영춘화, 멧대추나무, 목련 등이 있다. 휘둘리로 심으면 좋은 뽕나무, 탱자나무, 꺾꽂이하면 좋은 무궁화나무, 짚레나무, 덕나무, 멀구슬나무, 느릅나무, 백양나무, 두릅나무, 주엽나무, 인동초, 머루 등, 이식하면 좋은 참죽나무와 비파나무 등이 있다. 	수목보호 (護養)

3. '임원경제지'에 기록된 주요 조경관련 식물의 증예법

1) 자두나무(李), 살구나무(杏), 매실나무(梅), 복숭아나무(桃)

자두나무는 비옥한 토질을 싫어하여 땅이 비옥하면 오히려 열매를 맺지 않으며, 자두나무와 복숭아나무는 잡초를 매어 주어야 하나 갈아주면 열매가 많이 열리지 않고, 2걸음에 1그루씩 이식하는 것이 좋은데, 이식에는 봄에 뿌리가 가까이 난 작은 가지를 옮겨 심으면 좋다고 기술하고 있다. 특히, 복숭아나무에 자두나무를 접붙이면 좋고, 자두나무에 복숭아나무와 매실나무를 접붙여도 잘 활착됨을 설명하였다.

살구나무의 행(杏)은 열매가 나뭇가지 사이에 끼어있는 것을 형상화한 것인데, 익은 살구를 거름흙에 묻어두고 4자정도 자라면 옮겨 심는 것이 좋으며, 가물면 물을 주고 서리와 눈이 내리면 연기를 피워 꽃봉오리를 보호해 주어야 하며, 복숭아나무에 살구나무를 접붙이면 쉽게 활착되고 열매가 붉으며 오래도록 썩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다.

매실나무는 여러 맛을 매개한다 하여 매(梅)라 하였는데, 연못가, 시냇가, 밭두둑, 담장모퉁이, 물웅덩이 있는 곳에 심으면 열매가 많이 열리며, 봄에 씨를 거름 땅에 뿌려 이듬해 2-3자쯤 자란 묘목을 옮겨 심는 것이 좋다 하였다. 큰 나무를 이식할 때는 가지를 제거하고 뿌리분을 크게 떠서 비옥한 땅에 심으면 잘 활착된다 하였으며, 춘분이후 자두나무에 접붙이면 열매가 붉고 달며, 살구나무에 접붙이면 오래살고, 복숭아나무에 접붙이면 큰 열매가 달리나 오래 살지 못 함을 기술하였다. 한편, 뽕나무에 접붙이면 열매가 시지 않고, 거름 물을 싫어하며, 연못의 물을 좋아하는데, 복숭아나무는 심은 지 3년이면 열매를 맺고, 자두나무는 4년, 매실나무는 12년쯤 후 열매 맺음을 기술하고 있다.

복숭아나무는 열매가 많이 열리므로 도(桃)는 조(兆)를 의미하는데, 과육채로 거름 땅에 꼭지가 위로 향하게 얇게 묻어두면 싹이 잘 나며 그때 옮겨 심는 것이 좋다 하였다. 3년이면 열매를 맺으며, 7-8년이면 노쇠하고 10년이면 죽으므로 해마다 나무를 심어야 함을 권장하고

있다. 한편, 살구나무에 접붙이면 열매가 크고, 자두나무에 접붙이면 이도(梨桃)가 되는데 열매가 붉고 달다 하였으며, 매실나무에 접붙이면 취도(脆桃)가 되며 열매가 아삭아삭하고, 감나무에 접붙이면 금도(金桃)가 됨을 기록하였다.

2) 대추나무(棗), 배나무(梨), 능금나무(柰)

대추나무는 타원형으로 살찐 종자를 취하여 심는 것을 권장하였고, 잎이 나올 때 옮겨 심어야 하며, 3걸음 간격으로 1주씩 심고, 옮겨 심을 때 뿌리가 2자면 4자 깊이로 심어야 함을 제시하였다. 한편, 상수리나무에 접붙이면 열매가 크고 맛도 좋으며, 정월 초하루 해가 뜰 무렵 대추나무를 두드려주면 열매를 많이 맺는데, 나무를 흔들어 열매를 수확하는 것이 좋다고 기술하고 있다.

배는 이로운(利) 나무의 뜻으로 백과지종(百果之宗)이며, 서풍을 싫어한다 하였으며, 과중할 때는 배를 통째로 파묻고 이듬해 3자쯤 자란 것을 옮겨 심는데 거름과 물을 충분히 주어야 함을 설명하고 있다. 한편, 대추나무와 석류나무에 접붙이면 좋고, 아그배나무와 팔배나무도 무난하다 하였으며, 싹이 움 틀 때 접붙이는 것이 좋은데, 과수는 곁가지를 쓰고, 정원수는 중심 가지를 쓰는 것이 좋다 하였다. 또한, 먼 곳으로 부터 옮겨 심을 때는 뿌리 끝에서 3-4치 정도 불에 태워 심어야 함을 권장하고 있다.

능금나무의 내(柰)는 열매가 나무에 달려있는 것을 형상화 하였는데, 흰색인 소내(素柰), 적색인 단내(丹柰), 청색인 녹내(綠柰) 등의 품종을 기술하였다. 특히, 꺾꽂이 방법이 좋고, 뽕나무에 휘묻이하여 접붙이거나 복숭아나무, 배나무처럼 이식하면 좋다 하였으며, 꽃이 필 때 뿌리 위에서 나온 작은 가지를 12월에 옮겨 심어도 무방하다고 하였다.

3) 감나무(柿), 석류나무(安石榴)

감나무는 추위를 싫어하므로 바람을 막아주는 양지쪽이 좋고, 바닷바람을 좋아하여 산을 낀 바닷가가 적합하며, 접붙이기는 고욤나무, 옷나무, 버드나무 등을 권장하였다. 그러나, 양지에 심으면 열매가 적게 열리므로 음지

에 심어야 좋고, 서리를 맞아 열매가 붉어지면 먹을 수 있음을 기술하고 있다.

석류나무는 안석국에서 종자를 갖고 왔으므로 안석류라 하는데, 붉은색, 황색, 흰색 등 3가지 꽃 색깔이 있으며 홑꽃에서 과실이 열리고 겹꽃에는 열리지 않는다 하였다. 꺾꽂이는 1자 정도 되는 엄지손가락 굵기의 가지를 끝에 불로 지져 땅에 꽂아 2치 정도 땅 위로 나오게 심어 물을 자주 뿌려주면 좋다고 하였으며, 열가지를 휘묻이 하면 이듬해 뿌리가 생기므로 그때 잘라서 옮겨심기를 권장하고 있다. 한편, 비료를 좋아하는데 열매를 맺을 때 많은 물을 주면 좋지 않고, 춘분 전에 가지와 나무 끝을 잘라주어야 열매가 크게 열림을 기록하고 있으며, 화분에 심은 석류나무는 물을 자주 주고 햇볕을 잘 쬐어야 함을 설명하였다. 특히, 북쪽지방은 추운 날이 많아 매년 움집을 만들어 갈무리해야 함을 권장하고 있다.

4) 앵두나무(櫻桃), 모과나무(木瓜), 은행나무(銀杏), 잣나무(海松子)

앵두나무는 피꼬리가 잘 따먹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으로, 옮겨 심으면 가지가 왕성해 진다하여 이사락(移徙樂)이라 하였는데, 음력 2월 초에 옮겨 심되 양지에서 자란 것은 양지에, 음지에서 자란 것은 음지에 이식해야 함을 제안하고 있다. 특히, 4월 장맛비가 내릴 때 손가락 크기만 한 가지를 비옥한 땅에 꽂아 주면 잘 활착되고, 살구나무에 접붙이면 열매가 크며 달고 향기롭다 하였다.

모과나무는 2월에 씨를 심어 가을에 이식하면 이듬해에 열매를 맺는다 하였으며, 씨를 심는 것과 이식하는 것 모두 압지법을 쓰면 되는데, 복숭아나무와 자두나무의 방법과 같다고 설명하고 있다.

은행은 열매가 희며, 압각(鴨脚)이란 잎이 오리발 비슷하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인데, 씨를 심어 가꾼 나무에 접을 붙이면 열매가 좋다고 하였다. 춘분 전후에 구덩이를 깊게 파고 물을 뿌려 옮겨 심는데, 분을 깨뜨리지 않아야 함을 제안하였다. 특히, 열매가 이각인 암컷과 삼각인 수컷을 마주보게 심어야 하는데, 연못가에 심어 그림자를 비치게 하면 열매를 잘 맺게 되고, 크게 자라므로 넓은

공지에 심어야 함을 권장하였다.

한편, 잣나무는 잎이 '5엽'인데, 2-3월에 파종하면 좋다고 하였으며, 해빙 된 후 싹이 났을 때 1자 7치 깊이로 씨를 하나씩 덮어 심으면 5년 내에 열매 맺음을 설명하고 있다.

5) 포도(葡萄), 연(蓮)

포도는 술을 만들어 마시면 취하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인데, 서풍을 좋아하므로 양지에 서풍을 받는 곳을 택해야 함을 제시 하였다. 꺾꽂이는 춘분 이전에 시행해야 하는데, 늦게 되면 수액이 흘러나와 나무줄기를 손상시킨다고 설명하고 있다. 한편, 2-3월 사이에 넝쿨가지를 끊어서 비옥한 땅에 꺾꽂이 하고, 넝쿨이 뻗으면 받침대로 올려주어야 하며, 열매 맺기를 기다렸다가 번무한 잎을 잘라주면 튼실해지고 커진다 하였다.

연밭은 벌이 벌집 속에 있는 모양으로, 야생 연과 붉은 꽃이 피는 것은 꽃이 많은데 비해 뿌리가 좋지 않고, 집에 심거나 흰꽃이 피는 것은 연꽃이 적은 반면 뿌리가 좋다 하였다. 특히, 8-9월 중에 연밭을 따서 씨앗의 껍질이 얇아지도록 윗부분을 갈아 진흙으로 연밭을 감싼 후 진흙이 마를 때 못 속에 던져 넣으면 반듯이 가라앉아 잘 심어진다고 하였다. 뿌리는 2월중에 작은 뿌리를 진흙채로 캐내어 얇은 물에 심으면 그 해에 연꽃이 피는데, 깊은 물은 좋지 않고 무성해지면 못이 깊어도 무방하다 하였다. 한편, 가시연은 8월중에 열매를 거두어 부들 꾸러미에 싸서 물속에 담구거나 종이에 싸서 병에 넣어 땅 속에 묻어두었다가 이듬해 3월 얇은 물에 흠어 뿌리고 잎이 나면 옮겨 심는데, 깊은 물에는 포기 사이를 5자 남짓이면 좋다고 하였다.

6) 소나무(松), 측백나무(側柏), 전나무(檜)

소나무는 공작과 같고, 잣나무는 백작과 같다하여 소나무는 공을, 잣나무는 백을 취하였다. 소나무와 잣나무는 정월과 우수에 옮겨 심어야 하며, 씨앗을 갈무리하였다가 이듬해 춘분 때 단물에 열흘간 담근 후 채소 심는 것과 같이 두둑에 뿌려 물을 촉촉이 주면 싹이 잘 난다고 설명하고 있다. 나무가 45치 정도 자라면 10월 중에 수

숫대로 울타리를 쳐 북풍을 막아야 하고, 2년이 지난 후 분을 떠서 옮겨 심는데, 거름흙을 섞어 물을 부어가며 심어주어야 함을 권장하고 있다. 큰 나무를 심을 때는 3월 중에 옮겨야 하고 뿌리분을 넓게 붙여야 하며, 반송으로 키우고자 할 때는 주근을 잘라 곁뿌리만 남겨 심으면 된다 하였다. 큰 소나무를 옮길 때는 2월 초순이나 중순에 남북방향을 표시하고 잔뿌리를 상하지 않게 하여 보리를 넣고 방향을 맞추어 원래 자라던 흙과 높이로 채워야 하며, 골고루 다진 후 버팀목을 세우고 아침저녁으로 물을 주면 살릴 수 있다고 하였다.

측백나무는 음목으로 서쪽 방향인 흰 백(白)을 취하였는데, 9월중에 씨가 여물 때 채취하여 다음해 2·3월에 습한 땅에 물을 흠뻑 주어 짝이 트면 비옥한 땅 두둑에 뿌려주고 흙으로 반치정도 덮어주어야 함을 제안하고 있다. 한편, 짝이 나면 낮은 울타리로 보호해 주고 거름 물을 주어 2·3자 정도 자랐을 때 이식해야 하며, 가을에 가지를 2·3자 잘라 꺾꽂이해도 좋고, 5·6월 긴 장마 때 가을 보리를 구덩이에 깔고 심으면 잘 활착되는데, 양지에 심어 거름 물을 주면 잎이 무성해 짐을 설명하였다.

전나무는 측백나무의 잎과 소나무의 몸체를 가지고 있는데, 뜰에 심으면 푸른 잎이 사랑스럽다 하였으며, 짝이 옹틀 때 황토 땅에 두둑을 만들고 1자 5치 길이의 가지를 5·7치 깊이로 꺾꽂이해야 함을 기술하고 있다. 한편, 물을 자주주어 어느 정도 자라면 옮겨 심는데, 소나무 및 잣나무와 동일한 방법임을 설명하고 있다.

7) 느릅나무(榆), 버드나무(柳), 회화나무(槐), 오동나무(桐)

느릅나무는 그늘이 넓으므로 임원(林園)의 북쪽이 적합하고 척박한 땅에 심는 것이 좋다 하였는데, 땅을 갈아 이랑을 만들고 느릅나무 꼬투리를 흠뻑려 짝이 나면 잘라버리고 이듬해 굵고 곧게 자란 가지만 남기고 잘라낸 후 다음해 정월과 2월에 옮겨 심어야 함을 제안하였다.

버드나무는 가지가 단단하고 위로 뻗은 것을 양류(楊柳), 가지가 약하면서 부드러운 것을 류(柳)라 하는데, 정월과 2월에 옮겨 심어야 함을 권장하였다. 속담에 “버드나무는 봄으로 하여금 알지 못하게 꺾꽂이 하라” 고 하였는데, 입춘 전에 심어야 함을 의미한다. 꺾꽂이에는 푸르

고 연한 가지를 잘라 끝을 2·3치 불에 태우고 2자 이상 땅에 묻으면 되는데, 똑바로 꽂으면 버들이 되고 거꾸로 꽂으면 양(楊)이 된다고 하였다.

회화나무는 씨앗을 이듬해 5월하지 쫓 10여일 전에 물에 담가 싹이 나게 하여 비가 올 때 파종해야 함을 제안하고 있다. 나무가 어느 정도 자라면 받침대를 세워 받쳐 주고, 3년쯤 키워 옮겨 심으면 가지런하게 잘 자란다 하였으며, 곁뿌리를 분주하여 옮겨 심어도 되고 꺾꽂이도 무방함을 언급하고 있다.

오동나무는 따뜻하고 비옥한 땅에 옮겨 심으면 좋은데, 언덕에 파종하면 좋고, 저습하면 싹을 틔우지 못한다 하였으며, 겨울철 한두 해 자란 것을 선택하여 이식하고 거름을 주어 황토로 덮어주는 것이 좋다 하였다. 한편, 봄이 되면 잎이 무성해지고 가지가 잘 뻗어 새 줄기가 5·6자쯤 자라며 이듬해 봄에는 뿌리가 퍼져 잘 자란다고 하였다.

8) 왕벚나무(樺), 가래나무(楸梓), 광나무(女貞)

왕벚나무 껍질을 훈증시켜 그림을 그리고 글자를 써서 목화(木畵)라 하여 화(樺)란 이름을 얻었는데, 3월에 연하게 붉은 꽃이 피고 열매는 푸르다가 붉게 익으면 검은 반점이 생기며, 앵두보다 조금 일찍 익는다고 하였다.

가래나무는 못나무의 우두머리로 목왕(木王)이라 하는데, 초겨울에 씨를 거두어 흙 두둑에 흩어 뿌려주면 이듬해 봄에 싹이 잘 나옴을 설명하였다. 묘목은 이듬해 정월에 이식하는데, 나무가 크게 자라기 때문에 사방 2보 간격으로 심어야 함을 권장하였다.

광나무는 잎이 번치 않는 절개를 지킴이 있다하여 정녀(貞女)로 형상화 하였으며, 12월에 파종하면 봄에 싹이 나는데, 이듬해 3월에 옮겨 심어야 하고 뽕나무 심는 법과 비슷하며, 비옥하게 관리하면 밀랍을 많이 생산할 수 있다고 기술하였다.

9) 멀구슬나무(棟), 차나무(茶), 대나무(竹)

멀구슬나무는 3·4월에 자홍색 꽃이 피고 탄환처럼 생긴 열매가 익으면 누런색이 된다 하였으며, 일반적으로는 이식이 잘 되는데, 방죽가에 심으면 좋고 평지에서는 땅을

갈아 두둑을 만들어 심어야 함을 권장하였다. 열매가 여물었을 때 비가 내린 뒤 복숭아나무나 자두나무처럼 심어 큰 나무가 되면 이식하는 방법을 곁들여 설명하였다.

차나무는 2월에 나무를 심고, 청명에서 곡우까지 찾이를 탄다 하였다. 구덩이에 60-70알정도 파종하고 흙을 1치두께로 덮어주어 싹이 나면 2자 간격으로 1그루씩 심는데, 3년 후에는 수확할 수 있다 하였다. 매화나무, 소나무, 대나무 사이에 심어 눈과 서리를 피하고 햇볕을 가려주어야 하며, 아래쪽에 난초, 국화, 향초 등을 심는다 하였다. 종자가 여물었을 때 수확하여 습한 모래흙과 섞어 대바구니에 담아 벗짚으로 덮어 갈무리 하였다가 파종하면 싹이 잘 나온다 하였으며, 차는 조릿대 옆으로 보관하는 것이 좋다고 하였다.

대나무는 뿌리 위 첫 가지가 쌍 가지인 것이 암나무이고 홀 가지인 것이 숫나무인데, 순이 많이 나는 암나무를 골라 심는 것이 좋다 하였다. 산언덕 가까운 곳, 높고 평평한 땅에 심는 것이 좋은데, 낮은 곳에 심어 물이차면 잘 죽으며, 대숲 바깥 양지쪽에서 자란 것을 옮겨 심으면 잘 산다 하였다. 죽취일(竹醉日, 나무가 취해있어 옮겨심기 좋은 5월 13일)에 옮겨 심어야 함을 권장하였는데, 이 시기를 맞추면 병이 들었어도 잘 회복된다 하였다. 실용적 관점에서 삼복간과 12월에 베어 쓰는 것이 좋고, 목욕죽팔(木六竹八)이란 말은 나무는 6월에, 대나무는 8월에 베어 쓴다는 의미임을 설명하고 있다. 한편, 대나무는 일반적으로 서남쪽으로 뻗어 자라는 특성이 있으므로 동북쪽 모퉁이에 옮겨 심으면 몇 년이 지나 채워진다고 설명하고 있다. 옮겨 심는 요점은 바람에 흔들리지 않도록 줄기를 한두 자 크기로 자른 뒤 곁뿌리를 적당한 크기로 잘라 흙으로 덮어두고 물을 주면서 가꾸다가 옮겨 심으면 잘 활착됨을 기술하고 있다. 속설에 한사람이 대나무를 심으면 10년이 되어야 무성해 지고, 10사람이 심으면 1년이면 무성해진다고 하였는데, 크게 여러 포기로 옮겨 심어야 뿌리가 상하지 않고 잘 활착 된다는 의미를 곁들여 설명하고 있다. 한편, 꽃이 피고 열매가 생기면 말라 죽게 되는데, 뿌리가 서로 엉켜있기 때문에 대밭을 나누어 묵은 뿌리를 헤쳐 놓으면 다음해에 무성해 진다는 관리방안을 제시 하였다.

종합고찰

고문헌을 분석하여 조선시대 조경관련 식물의 이용경향, 그리고 서유구의 '임원경제지'를 통해 본 식물종의 증예법에 관한 종합고찰내용은 다음과 같다.

고문헌 '양화소록', '지봉유설', '산림경제', '임원경제지'를 대상으로 분석한 조경관련 식물종의 148종에 대한 출현 빈도는 화류 50종(33.8%), 과실수류 31종(20.9%), 목류 25종(16.9%), 화류 15종(10.1%), 덩굴류 14종(9.5%), 기타 13종(8.8%) 순 이었다. 식물 성상을 보면 낙엽교목 49종(33.1%), 상록교목 12종(8.1%), 낙엽관목 18종(12.2%), 상록관목 6종(4.0%), 덩굴식물 5종(3.4%), 수생식물 11종(7.4%), 초화 37종(25.0%), 기타 10종(6.8%)으로 분석되었다.

즉, 낙엽수의 비중이 상록수에 비해 3.7배 이상 높았으며, 꽃이 피는 화목 및 과실수, 낙엽활엽수의 선호경향이 뚜렷했다. 이러한 경향은 우리의 풍토환경에 부합되는 자생수종의 활용, 계절미를 취할 수 있는 심미적 가치, 꽃과 열매를 취할 수 있는 이용후생 경향, 성리학적 가치 기준에 의한 의미경관의 추구 원인 등을 들 수 있다.

'임원경제지'는 조경관련 식물종의 심고 가꾸기에 대한 원칙은 물론, 개체식물의 명칭과 품종, 적합 토양, 심고 가꾸기, 접붙이기, 물주고 복돋우기, 수확하고 저장하기, 병충해 치료, 용도 등 적재적소의 증예법을 기술하고 있는바, 경험론에 바탕을 둔 실사구시 내용을 체계적으로 담고 있는 귀중한 자료가 된다. 한편, 나무심기는 '종재'와 '재식', 나무 심는 시기는 '재수시후', 옮겨심기는 '이재', 뿌리분을 '근반', 새와 벌레 퇴치하기는 '벽금충법', 바람 막기는 '어풍', 서리물리치기는 '거상', 울타리 만들기는 '작원리'로 기록하였다. 또한, 품종 명칭은 '명품', 적합한 토양은 '토의', 심고 가꾸기는 '중예', 치료는 '의치', 보호하고 기르기는 '호양', 보기 좋은 나무를 '가수', 뜰을 '정원'과 '원포', 차밭은 '다원', 뜰 관리자를 '포자' 또는 '원정'으로 기록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오늘날 일본 용어를 그대로 받아들여 사용하고 있는 식재, 이식, 근분, 식재적기 등의 용례는 신중

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하겠다.

식재 최적기의 경우 음력 1월을 상시(上時)로 제시하면서, 봄 3개월 동안의 15일 이전에 옮겨 심어야 잎이 무성하며 열매를 잘 맺는다 하였다. 비옥한 흙을 붙여 분뜨기 하며, 가지를 원래 생육방향에 맞춰 문혔던 높이만큼 복토하여 버팀목으로 보호하여 식재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한편, 씨앗 심기는 1치 깊이가 좋고, 꺾꽂이는 1월과 2월 사이에 손가락 굵기의 가지를 5치 길이로 심는 것이 좋으며, 과실수는 접붙일 때 남쪽으로 뺀 가지를 쓰면 열매가 많이 달리고, 정월에 전지하면 열매가 탐스러우며 굵어진다 하였다.

특히, 식재 시기와 관련하여 최적합 시기를 음력 1월로, 식재적기를 음력 1월에서 3월 사이로 제시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오늘날 중부지방 이식 적기를 양력 3월 10일에서 5월 20일 사이로 판단하는 기준과 비교한다면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울타리 조성은 가을에 땃대추를 뽕뽕하게 심어 이듬해 가을 1차 간격으로 이식하고, 1-2년 후 봄에 7자 정도 높이로 엮는다 하였으며, 느릅나무와 버드나무를 섞어 심어 사람 키만큼 자란 뒤 엮어주면 가지와 잎이 창살처럼 뒤엉키어 용과 뱀, 새와 짐승모양이 되어 기이하고 아름답게 만들어 진다고 하였다.

한편, 울타리에 쓰이는 나무로 탕자나무, 무궁화나무, 버드나무, 사철나무, 산앵두나무, 오가피나무, 매실나무, 구기자나무, 산수유나무, 치자나무, 뽕나무, 찔레나무, 닥나무, 멸구슬나무, 느릅나무, 백양나무, 인동초 등을 권장하였다.

즉, 전통시대 생울타리 조성에는 교목은 물론 관목에 이르기 까지 다양한 식물종이 활용되었는데, 대추나무, 느릅나무, 버드나무 등 교목의 경우는 의도적으로 뽕뽕하게 심어 도둑방지, 시각차폐와 같은 높은 울타리로 활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식재 및 가꾸기와 관련하여 자두나무, 복숭아나무, 은행나무 등은 열매가 위를 향해 달리는 것을 이식하면 활착이 잘 되고, 매화나무는 자두나무에 접붙이면 열매가 달며 살구나무에 접붙이면 오래 산다고 기술 하였다. 복숭아나무는 파종을 해도 3년이면 열매를 맺고 10년이면

죽으므로 해마다 심어야 하며, 배나무는 대추나무, 석류나무, 아그배나무에 접붙이면 과실이 크고 육질이 좋다고 설명 하였다.

한편, 감나무는 일곱 가지 빼어난 점이 있는데, 오래 살고, 그늘이 좋으며, 새가 집을 짓지 않고, 벌레가 끼지 않으며, 서리 맞은 잎은 감상할 수 있고, 먹을 수 있으며, 잎이 두껍고 커서 글씨를 쓸 수 있다고 하였다. 앵두나무는 2월 초에 옮겨 심는 것이 좋고, 포도나무는 서풍을 좋아하는데 춘분 이전에 꺾꽂이해야 한다고 하였다.

연은 89월에 씨앗의 윗부분을 갈아 진흙으로 감싼 후 못 속에 넣으면 잘 활착되고, 뿌리는 2월중에 진흙채로 캐내어 얇은 물에 심으면 꽃이 잘 핀다고 설명 하였다. 소나무와 잣나무는 춘사일 전에 흙을 많이 붙여 이식하면 좋고, 곧은 뿌리인 직근을 잘라 심으면 반송이 되며, 큰 소나무는 2월 초순이나 중순에 자라던 방향으로 잔뿌리가 상하지 않도록 버팀목을 세워 이식하면 잘 활착된다고 하였다.

버드나무는 입춘 전에 연한 가지를 6-7자 정도 잘라서 끝을 불에 태워 2자 이상 깊이 묻어 꺾꽂이하고, 회화나무는 하지 10여일 전에 씨앗을 물에 담가 싹이 나면 파종하는데 3년쯤 키운 후 옮겨 심으며, 오동나무는 양지바른 비옥한 땅을 좋아하므로 언덕 가까운 곳에 파종하는 것이 좋다고 기술하였다.

가래나무는 초겨울에 씨를 두둑에 흩어 뿌려 놓으면 이듬해 봄에 싹이 나는데, 다음해 정월에 2보 간격으로 심어주며, 차나무는 매화나무, 소나무, 대나무 사이에 심어 추위를 피하게 하고 햇볕을 가려주어야 함을 설명하고 있다. 한편, 대나무는 암나무를 언덕 가까운 곳이나 높고 평평한 땅에 심는 것이 좋고, 양지에서 자란 것을 옮겨 심어야 잘 활착된다고 기술하였다.

결론

조선시대 조경관련 식물의 이용경향과 서유구의 '임원경제지'를 통해 본 식물종의 종예법(種藝法)에 관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고문헌을 대상으로 분석한 조선시대 조경관련 식물(148종)에 대한 출현 빈도는 낙엽수의 비중이 상록수에 비해 3.7배 이상 높았으며, 화목 및 과실수, 그리고 낙엽 활엽수의 선호경향이 뚜렷했다. 이러한 경향은 풍토환경에 부합되는 자생수종의 활용, 계절미를 취할 수 있는 심미적 가치, 꽃과 열매를 취할 수 있는 이용후생 경향, 성리학적 가치기준에 의한 의미경관의 추구 원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되고 있음을 추적할 수 있다.

2. '임원경제지'는 17-18세기 조선 농서 편찬의 맥락을 계승한 종합백과사전 성격의 농서인데, '예원지'와 '만학지'에는 식물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인체의 5관(官)을 만족시킬 수 있는 화훼류, 과실수 그리고 임목류 등 식물 명칭의 고증, 품종 및 재배법, 보호하고 기르기, 병충해 대책 등 적재적소의 종예법을 체계적으로 기술하고 있는 바, 양화소록, 산림경제와 함께 조선시대 저술된 실사구시적 조경 관련 대표 문헌이라 하겠다.

3. 조경관련 용어로 나무심기는 종재(種栽)와 재식(栽植), 심는 시기는 재수시후(栽樹時候), 옮겨심기는 이재(移栽), 뿌리분은 근반(根盤), 새와 벌레 퇴치법은 벽금충법(?禽蟲法), 바람 막기는 어풍(禦風), 서리물리치기는 거상(拒霜), 울타리 만들기는 작원리(作園籬)로 기술하였다. 또한, 품종 명칭은 명품(名品), 적합한 토양은 토의(土宜), 심고 가꾸기는 종예(種藝), 치료는 의치(醫治), 보호하고 기르기는 호양(護養), 보기 좋은 나무를 가수(佳

樹), 뜰은 정원(庭園)과 원포(園圃), 차밭은 다원(茶園), 뜰 관리자는 포자(圃者)와 원정(園丁)으로 기술하였다.

4. 식재 적기는 음력 1월을 상시(上時)로 제시하였고, 비옥한 흙을 붙여 분뜨기 하며, 가지를 원래 생육방향에 맞춰 문혔던 높이만큼 복토하여 버팀목으로 보호하여 식재해야 함을 권장하였다. 특히, 식재적기를 음력 1월에서 3월 사이로 제시하면서 최적합 시기(上時)를 1월로 기술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오늘날 시행되는 이식 적기 판단 기준과 비교하면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고 하겠다.

5. 울타리 조성에는 느릅나무와 버드나무는 물론 탕자나무, 무궁화나무, 사철나무, 산앵두나무, 오가피나무, 매실나무, 구기자나무, 산수유나무, 치자나무, 뽕나무, 찔레나무, 닥나무, 멸구슬나무, 백양나무, 인동초 등이 권장되었다. 즉, 교목은 물론 관목에 이르기 까지 다양한 식물종이 권장되었는데, 도둑방지 및 시각차폐와 같은 기능식재로 활용되었다.

6. '임원경제지'는 식물의 이식시기 및 방법, 적합한 장소와 토양조건, 보호 및 관리하기 등을 품종별로 체계화시켜 경험론적 관점에서 종예법을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 조경 식재 설계 및 시공관리에 있어서 식물의 생태 및 제반 환경조건 등을 고려하지 않고 짧은 기간 내에 일괄적으로 시공하여 준공처리하는 시공관리기법에서 많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참고문헌

- 강명관, 2007, 『조선의 인물, 조선의 책 서유구와 '임원경제지』, 주간동아 579호, pp. 98~100.
- 김영진, 1984, 『조선시대전기농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총서, p.15.
- 김홍식, 1984, 『임원십육지의 상택지를 중심으로 한 조선 후기 건축계획론에 관한 연구』, 문화재 제 17호, pp. 28~45.
- 노재현, 오현경, 한상엽, 2009, 『비해당사십팔영 출현식물이 조선시대 원예 관련서에 미친 영향』, 한국전통조경학회지 68호, pp. 2~6.
- 농촌진흥청, 2003, 『국역, 증보산림경제』, 민후아트.
- 민경현, 1991, 『한국정원문화』, 예경산업사.
- 민족문화추진회, 1982, 『국역 산림경제』, 민족문화문고간행회.
- 박동필, 2002, 『임원경제지의 생기관점에서 본 양동마을 주거연구』, 서울시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순철, 김영, 2010, 『국역 임원경제지』, 만학지, 소와당.
- 변우혁, 1975, 『이조시대 정원의 수목과 배식에 관한 연구』, 서울대 환경대학원 석사논문.
- 서유구, 1827, 『임원경제지』, 김성우와 안대회 번역, 건축과 환경 및 꾸밈(1987-1990).
- 신상섭, 2011, 『홍만선의 산림경제에서 본 조경식물 재배와 가꾸기』, 문화재 제44권 제3호, pp. 18~43.
- 신상섭, 노재현, 2009, 『지봉유설로 본 이수광의 조경식물 인식 및 가치관』, 한국전통조경학회지 27(1), pp. 1~10.
- 염정섭, 2009, 『임원경제지의 구성과 내용』 농업사 연구 제8권 1호, 한국농업사학회.
- 염정섭, 옥영정, 심경호, 유봉학, 2011, 『풍석 서유구와 임원경제지』 소와당.
- 이상희, 1997, 『꽃으로 보는 한국 문화 1·3』, 넥서스Books.
- 이선, 2006, 『우리와 함께 살아온 나무와 꽃』 수류산방중심, pp. 370~379.
- 이종목, 2006, 『조선의 문화공간. 1책』, 휴머니스트, pp. 22~59.
- 이창복, 1982, 『대한식물도감』, 향문사.
- 장권열, 1990, 『우리나라의 고농서』 화훼류의 종류, 명칭과 품종명, 한국육종학회지 21(4), pp. 317~328.
- 장권열, 1990, 『우리나라의 고농서』 고농서에 나타난 임목류, 한국육종학회지 22(1), pp. 80~85.
- 정경희, 『예원지 해제』, 서울대학교규장각 한국학연구원.
- 정동오, 1986, 『한국의 정원』, 민음사, pp. 270~288.
- 정명현, 민철기, 정기기, 전종욱 외, 2012, 『임원경제지』 서유구 지음, 씨앗을 뿌리는 사람.
- 조창록, 2003, 『풍석 서유구에 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조창록, 2005 『林園經濟志의리과例言』, 한국실학연구10, 한국실학학회, p. 360.
- 조창록, 2010, 『사대부의 생활이상과 임원경제지』, 한문학보 제19집, pp. 803~817.
- 한국전통조경학회, 2009, 『동양조경문화사』, 도서출판 대가, pp. 132~134.
- http://blog.daum.net/_blog/BlogTypeView.do?blogid=07lad&artid=15808625&categoryId
- http://db.itkc.or.kr/itkcd/text/seojiViewPopup.jsp?bizName=MK&seojiType=heje&seojiId=kc_mk_g003
- http://kin.naver.com/open100/db_detail.php?d1id=11&dir_id=110205&eid
- <http://koreandb.empas.com/history/people/detail?sn=4718>
- <http://ko.wikipedia.org/wiki/%EC%82%B0%EA%B0%80%EC%9A%94%EB%A1%9D0>.

A Study on the Useful Trend of Plants Related to Landscape and How to Plant and Cultivate Through 'ImwonGyeongjaeji(林園經濟志)'

Shin, Sang-Sup

Dept. of Landscape Architecture and Urban Design, Woosuk University

Received : 2012. 10. 04 · Revised : 2012. 11. 01 · Accepted : 2012. 11. 22

ABSTRACT

The result of a study on the useful trend of plants related to landscape and how to plant and cultivate through 'ImwonGyeongjaeji Manhakji' of Seoyugu is as follows:

First, 'ImwonGyeongjaeji Manhakji', composed of total 5 volumes (General, Fruit trees, vegetables and creeper, plants, others) is a representative literature related to landscape which described the names of plants and varieties, soil condition, how to plant and cultivate, graft, how to prevent the insect attack etc systematically. Second, he recorded the tree planting as Jongjae(種栽) or Jaesik(栽植), and the period to plant the trees as Jaesusihoo(栽樹時候), transplanting as Yijae(移栽), making the fence as Jakwonri(作園籬), the names of varieties as Myeongpoom(名品), the suitable soil as Toeui(土宜), planting and cultivation as Jongye(種藝), treatment as Euichi(醫治), protection and breeding as Hoyang(護養), garden as Jeongwon(庭園) or Wonpo(園圃), garden manager as Poja(圃者) or Wonjeong(園丁). Third, the appearance frequency of plants was analyzed in the order of flowers, fruits, trees, and creepers and it showed that the gravity of deciduous trees was 3.7 times higher than that of evergreen trees. The preference of flower and trees, fruit trees and deciduous trees and broad-leaved trees includes ① application of the species of naturally growing trees which are harmonized with the natural environment ② Aesthetic value which enables to enjoy the beauty of season, ③ the trend of public welfare to take the flowers and fruits, ④ the use of symbolic elements based on the value reference of Neo-Confucianism etc. Fourth, he suggested the optimal planting period as January(上時) and emphasized to transplant by adding lots of fertile soil and cover up the seeds with soil as high as they are buried in accordance with the growing direction and protect them with a support. That is, considering the fact that he described the optimal planting period as January by lunar calendar, this suggests the hints in judging the planting period today. For planting the seeds, he recommended the depth with 1 chi(寸 : approx. 3.3cm), and for planting a cutting, he recommended to plant the finger-thick branch with depth 5 chi(approx. 16.5cm) between January and February. In case of graft of fruit trees, he described that if used the branch stretched to the south, you would get a lot of fruit and if cut the branches in January, the fruits would be appetizing and bigger. Fifth, the hedge(fence tree) is made by seeding the Jujube tree(Zizyphus jujuba var. inermis) in autumn densely and transplanting the jujube tree with 1 ja(尺 : approx. 30cm) interval in a row in next autumn and then binding them with the height of 7 ja(approx. 210cm) in the spring of next year. If planted by mixing a Elm tree(Ulmus davidiana var. japonica) and a Willow(Salix koreensis), the hedge whose branch and leaves are unique and beautiful like a grating can be made. For the hedge(fence tree), he recommended Trifoliolate orange(Poncitus trifoliata), Rose of sharon(Hibiscus syriacus), Willow(Salix koreensis), Spindle tree(Euonymus japonica), Cherry tree(Prunus tomentosa), Acanthopanax tree(Acanthopanax sessiliflorus), Japanese apricot tree(Prunus mume), Chinese wolf berry(Lycium chinense), Cornelian tree(Cornus officinalis), Gardenia(Gardenia jasminoides for. Grandiflora), Mulberry(Morus alba), Wild rosebush(Rosa multiflora) etc.

Key Words Seoyugu, ImwonGyeongjaeji Manhakji, Plant and Cultivate, Flower Tree and Fruit Tree, Deciduous Tree, Hedge[Fence Tree]